“호남 발전·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에 등대 역할 기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광주일보 지령 2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주일보는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2년 뜻있는 지역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창간된 이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지령 2만호가 되는 동안 주민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와 혜안을 제공해온 광주일보 가족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광주와 전남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유의 문화콘텐츠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의 힘을 더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통해 문화의 중심지로 더욱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호남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호남 발전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여정에 광주일보가 변함없이 등대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광주일보가 지역주민들의 사랑 속에 큰 발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5월28일
대통령 박근혜

“시대의 난관 극복한 민주주의 수호자”

정의화 국회의장

광주일보 지령 2만호 발간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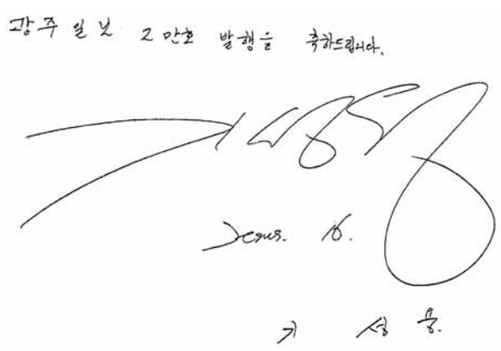
광주일보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 창간하여 반세기가 넘는 동안 우리 국민과 격변의 세월을 함께해왔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등 우리 민족의 역사를 빠짐없이, 진실 되게 기록하고 독자여러분께 알리는데 앞장서왔습니다.

시대상으로 볼 때, 언론으로서의 난관도 없지 않았겠습니다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굳건하게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광주일보는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의 도약을 이끄는 선구자로서 역사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출신 광주명예시민입니다. 남과 북으로 허리가 갈린 우리 한반도가 또다시 동서 갈등으로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동서에 드리워진 갈등의 잔재를 말끔하게 청산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광주일보가 다시 한 번 앞장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호남의 번영을 위해 광주일보가 전통의 정론지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광주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역출신 스포츠 스타 배출에 관심을”



축구선수 기성용(EPL 스완지)

멀리 타국에서 지내느라 직접 광주일보의 지면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고향 소식 잘 보고 있습니다. 2만호를 발행하기까지 많이 이야기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호남을 대표하는 지역지이자 언론의 산증인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많이 전해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따끔한 기사도 과감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 2의 기성용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역 축구와 스포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광주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라운드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일보를 통해서 좋은 소식 자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론직필의 길…63년 지역민의 친구”

김무성 새누리 당대표

광주일보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지역의 대표적 언론인 광주일보의 지령 2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일보는 1952년에 창간 1호의 첫 걸음을 내딛은 이후 63년 동안 지역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불편부당한 정론직필의 길을 걸으면서 지역민들에게 시대를 내다보는 혜안과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정론을 향한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이 광주일보를 호남언론의 상징으로 자리 매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주일보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일보가 쌓아온 역사적 유산 위에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는 선각자적 역할을 하는 데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광주일보 지령 2만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시·도민의 사랑 속에서 광주일보가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원합니다.

“국가의 미래 밝혀 국민의 언론 돼주길”

문재인 새정치 당대표

광주일보 지령 2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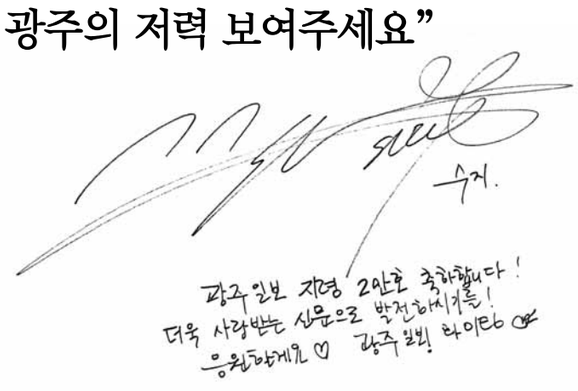
1952년 창간 이후 63년 만에 쌓아올린 금자탑입니다. 이 뜻 깊은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일보가 전국으로, 세계로 발전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광주일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격동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달려온 역사의 산증인이자 호남의 애환을 함께 해온 지역 주민의 벗이었습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도 오직 정론직필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데 대해 큰 박수를 보냅니다.

흔히 언론을 사회의 공기이자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광주일보가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입으로 말하는 국민의 언론으로 활약해주길 기대합니다. 또한 진실보도와 사회통합에 앞장섬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혀주는 선도적 언론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저와 새정치민주연합도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일보의 지령 2만호 발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애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U대회로 광주의 저력 보여주세요”



가수 수지(미쓰에이)

안녕하세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 수지입니다.

호남의 최대 정론지, 광주일보 지령 2만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952년 창간이후 63개 성상을 숱한 도전과 역경을 딛고 호남 대표언론으로서 위상을 꿋꿋이 지켜내고 2만호 발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인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올 여름 호남에서는 최대 규모의 국제 스포츠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인데요, 저 수지는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북 일원에서 개최되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대사로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 2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도전과 열정을 선보이는 이번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광주가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전 국민과 세계인의 시선이 광주로 향한 만큼 광주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앞장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언론·광주 역사에 새 금자탑”

윤장현 광주시장

광주일보 지령 2만호. 한국 언론사에 그리고 광주의 역사에 새로운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달라져도 기자들의 펜은 결코 무뎌지지 않습니다. 정론직필의 한 길을 가는 언론의 책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읽던 신문을 손자가 읽습니다. 대(代)를 이어 읽는 광주일보는 수많은 신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세상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시대를 바로 보며,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바른 소리’를 천업으로 여기며 사는 기자들이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대변인이 되었고, 불의 앞에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으며 오늘도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가 함께하는 오늘은 후손들에게 당당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넉넉하고 따뜻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지령 2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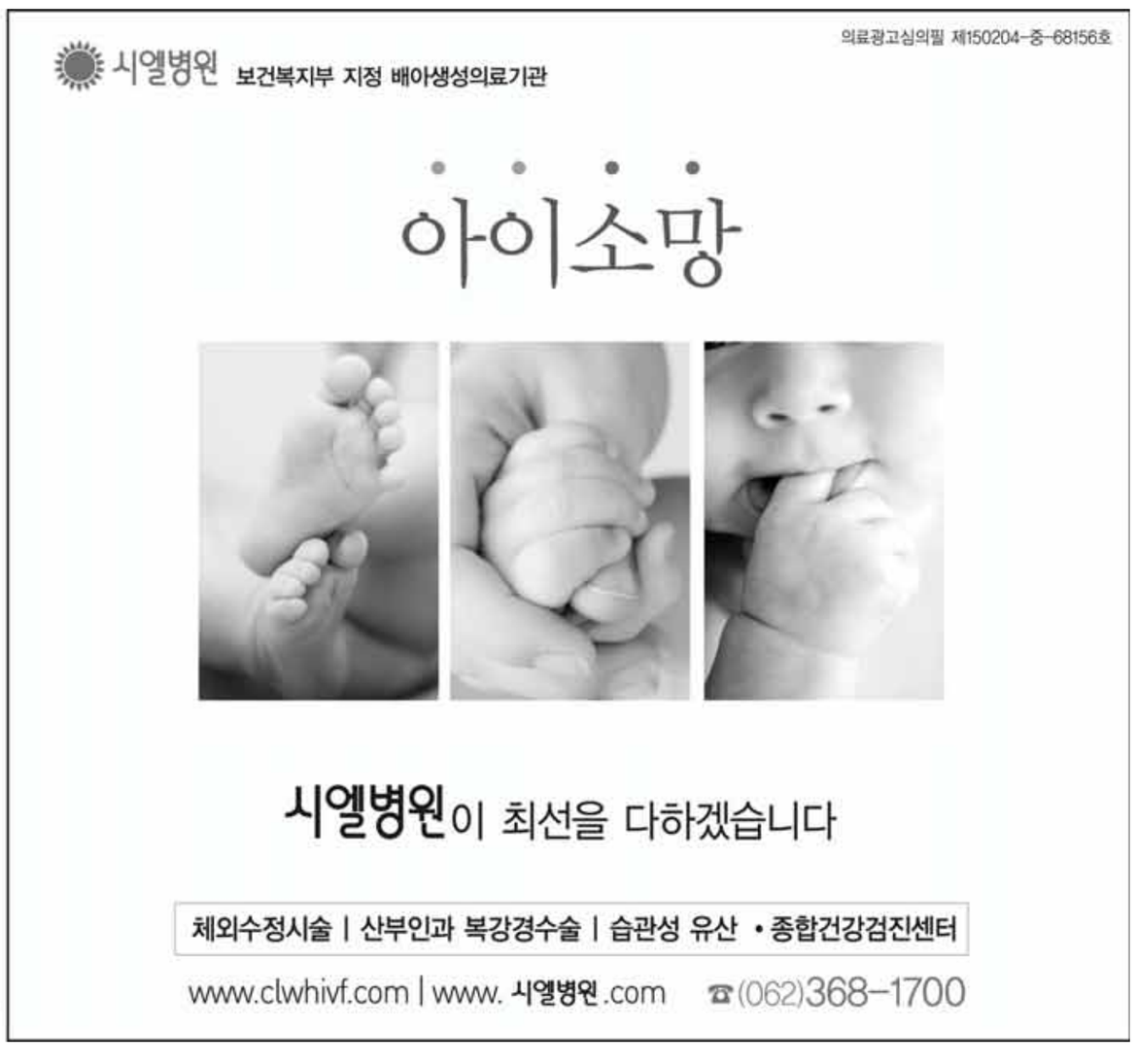
“시도민 지혜·힘 모아 미래 선봉으로”

이낙연 전남도지사

‘광주일보 2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일보는 지난 60여 년 동안 지역민의 친근한 벗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6·25전란이 한창이던 1952년 창간한 광주일보는 4·19와 5·18 등 역사의 고비마다 독자의 귀와 눈이 돼 주었습니다.

전남의 변화 과정을 올곧은 필봉으로 기록하면서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해 주었고, 바람직한 여론 형성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2만호 발행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광주일보가 앞으로도 지역 미래를 밝히는 선봉이 돼주기를 기대합니다.

전남은 청년이 돌아오는 생명의 땅 실현을 위해 오랜 침묵을 깨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긴 안목으로 도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가능할 일입니다. 광주일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